

87

염색작업자에서 발생한 전신소양증, 피부묘기증

성별	남	나이	58세	직종	도장보조작업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--	-------	----

1 개요

유○○(남, 39세)은 1987.2. S스타킹(주) 염색반에서 14년 10개월 간 스타킹 염색작업을 하던 중, 1993.4.3.부터 현재까지 전신소양증, 피부묘기증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.

2 작업환경

유○○은 염색반 염색작업자로 근무하였는데, 3명이 한조로 스타킹양말 12개조 또는 24개조가 한 묶음으로 담긴 자루를 염색기에 투입한다. 이때 배합실에서는 스타킹 일일생산계획에 따라 배합작업자인 생산부장이 투입할 염료를 미리 청량하여 투입할 통에 보관한다. 이어 염색기에 찬물을 투입하고 전기로 가열하여 염색기의 온도를 4시간 30분 간 상승시키면서 100℃ 이상 스팀상태까지 가열한다. 그 후 물을 빼면서 냉수를 투입하여 냉각 및 행굼가공을 수차례 하여 염색액을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탈수과정을 거치면 염색가공이 완료된다. 염색기 가동시 양말을 투입하거나 청량된 염료통을 붓거나 조제통에서 바가지로 떠서 조제를 투입할 때 보통 호흡보호구나 피부보호구없이 맨손으로 작업하는데, 빙초산을 쓸 때만 피부자극이 심하여 노란색 고무장갑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. 염색반에서 사용하는 모든 조제는 피부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조사되었다. 염색반에서 사용하는 염료중 산성염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상 피부자극 및 감작반응이 없으나 분산염료는 피부접촉시 감작반응이 있는 것으



로 나타나 있다.

3 의학적 소견

유○○은 1992.말부터 가려움증이 있어 1993.4.3.부터 10년 간 전신소양증, 피부묘기증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. 1992년말부터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가려움증이 있어 치료를 받았고, 근무중에도 가려워서 계속 긁으면 피부가 빨갛게 부풀어오르면서 긁은 자국에서 진물이 나왔다고 하였다.

4 결 론

유○○의 전신소양증, 피부묘기증은

- ① 전신소양증, 피부묘기증(만성두드러기)으로 진단되었고,
- ② 상기 근로자가 15년 간 염색작업시 노출된 화학물질중 피부자극성과 피부감작성이 있는 물질이 있었고 노출될 가능성도 있었음이 확인되었고,
- ③ 이로 인하여 상기 근로자가 10년 간 증상을 호소하였으므로,

상기 근로자의 전신소양증, 피부묘기증은 작업중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하여 상기 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.